

# ‘어벤져스3’, 개봉 이틀만에 세운 마블러스한 기록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위력은 예상했던대로 엄청났다. 개봉 이틀만에 새로운 기록을 연이어 세우며 2018년 최대 기대작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25일 개봉한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안소니 루소·존 루소 감독, 이하 ‘어벤져스’)가 97만8835명 모으며 역대 영화 최고 오프닝 및 역대 마블 영화 최고 오프닝을

### 역대 최단 기간 100만 관객 돌파 새 기록 세워 韓 개봉 영화 최초 사전 예매 100만 ‘기염’

7932명을 기록, 역대 최단 기간 100만 관객 돌파라는 새 기록을 세웠다.

종전 역대 최고 오프닝은 한국영화 ‘군함도’(97만2161명)를 필두로 ‘부산행’(87만2673명), ‘명량’(68만2701명) 등이 있었고, 영화 최고 오프닝은 영화 ‘미이라’(87만117명)였으며 마블 영화 중 최고 오프닝은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72만7901명)였고, 시리즈의 전작이자 마블 최초 전만 영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오프닝 기록은 62만2165명이다.

‘어벤져스’의 신기록은 개봉 하루 전인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바파하며 단순히 누적 관객수 118만

초로 사전 예매량 100만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며 개봉 전부터 흥행 역사를 새롭게 쓴 것 지난 24일 오후 5시 기준 예매율 94.9%, 예매량 100만8092장을 돌파했다. 이는 역대 국내 개봉작 중 최고 예매량이자 ‘어벤져스’ 시리즈의 전작으로 마블 최초 전만 영화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조스 웨던 감독, 2015)의 개봉 당일 오후 예매량인 97만1229장을 하루 빠르게 넘어선 기록이다.

이런 뜨거운 반응에 ‘어벤져스’가 어떤 흥행 기록을 내지라도 관심이 다. 영화 관계자들은 ‘어벤져스’가 올해 국내 최고 영화 흥행은 물론 마블 영화 최고 흥행 기록도 갈아치

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마블 영화 국내 흥행 1위는 2015년 1049만4499명(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다. 더 나아가 마블 영화 최고 신기록 뿐 아니라 지난 2009년 개봉해 1362만4328명을 동원한 역대 국내 박스오피스 1위 흥행 최고작 ‘하바타’(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기록까지도 뛰어넘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새로운 조합의 어벤져스 멤버들과 역대 최강 빌런 타노스의 무한 대결을 그린 마블 스튜디오의 10주년 블록버스터다.

강력한 초반 5분, 그리고 모든 장면이 스포일러라는 소문으로 기대를 고조하는 마블 10주년의 클라이맥스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지난 25일 개봉했다.

## ‘여자플러스2’ 첫방, 정보+재미 다 잡았다



‘여자플러스2’가 첫 화부터 알찬 뷰티정보와 재미를 보장한 방송으로 시선을 모았다.

28일 오전 SBS플러스 ‘여자플러스2’가 첫 방송됐다. ‘여자플러스2’는 젊은 층은 물론 30~40대 여성까지 즐길 수 있는 뷰티, 패션, 건강 등을 담아내는 라이프스타일 소로 지난해 방영된 시즌1의 인기를 이어 시즌2가 시작됐다.

‘여자플러스2’를 진행하는 4 MC는 ‘원조 뷰티퀸’ 유진, 남다른 패션 감각의 SNS 스타 윤하, 젊은 여성들의 뷰티 롤모델 이현이, 개성 넘치는 장도연이다. 30대의 비슷한 또래에 결혼 유야 등에 대해 공감하는 게 많은 이들은 첫 방송부터

찰진 재미를 선보였다. 유진은 과거 뷰티프로 그랩을 오래 진행했던 경험자답게, 진행은 능숙했고 뷰티정보는 빠삭했다. 둘째를 임신한 소식을 전해 동료MC들의 축하를 받기도 했다. 또 집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방법, 친구를 만나 식사를 하고 아이들의 옷을 쇼핑하는 등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도 공개했다.

유진은 첫째를 임신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잘 같이 미안한 마음도 솔직하게 내비쳤다. 그는 “솔직히 꾸미(태명)한테 미안하다. 애는 둘째라 그런지 존재가 되게 흐리다. 로회를 임신했을 때는 온 정성이 로희한테 있었다. 태교한다고 매일 말 걸고 음악 듣고 그랬다. 지금 꾸미한테는 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느낌이다 라고 전했다.

윤하와 이현이는 자신이 알고 있던 뷰티팁 공개는 물론, 적재적소에 알맞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대변했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환한 웃음과 유쾌한 입담, 가식 없이 솔직한 말들로 함께 ‘여자플러스2’에 딱 맞는 시너지 효과를 냈다. 막내 장도연은 특유의 개그감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화제에에만 분위기를 만들었다. 남들은 깨달지 못한 미간 주름 방지 패드를 직접 이마 위에 올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웃음을 선사했다. 장도연의 입담에 언니들은 시도 때도 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여자플러스2’는 여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뷰티정보 전달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특히 ‘뷰티FULL 닥터’ 코너에선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뷰티관련 Q&A를 진행해 시선을 모았다. 이날 첫 회의 주제는 ‘노화’로, 가정의학과 전문의 민혜연 원장, 천연화장품 전문가 유현주 뷰티디렉터를 초대해 다양한 토크를 나눴다.

노화의 정의부터, 아이크림을 얼얼 전체에 발라도 되는지, 단음식이 노화에 좋지 않은 이유, 나이가 들수록 하관이 발달하는 배경, 술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등, 그동안 누구나 궁금했거나 미처 알지 못했던 다양한 노화 관련 제품들을 소개했다. 유진은 로즈힐 오일, 장도연은 미간 주름 방지 패드, 이현이는 검은콩 물, 윤하는 마스크를 소개해 장점을 설명했다. 가식 없이 솔직한 이들의 리뷰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여자플러스2’는 첫 방송부터 4MC의 찰진 호흡을 바탕으로 여성의 외적인 뷰티, 건강, 이너뷰티,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해 공감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으로 시선을 모았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딛은 ‘여자플러스2’가 새로운 뷰티프로그램으로서 시청자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여자플러스2’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SBSplus, 오전 11시 SBS funE에서 방송된다.

## 김범수, ‘데뷔 20주년’ 서막 올렸다... ‘난 널 사랑해’



가수 김범수가 데뷔 20주년 장기 음원 프로젝트 ‘MAKE 20’의 서막을 올렸다.

김범수는 26일 낮 12시 각종 온라인 음원사이트를 통해 ‘MAKE 20’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싱글 ‘난

널 사랑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난 널 사랑해’는 지난 1996년 발매된 가수 신효령의 명곡으로 김범수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특히 레트로와 트렌디한 멜로디가 어우러지면서 ‘난 널 사랑해’ 세대와 현 세대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악으로 재탄생 시켰다.

지난 25일 개최된 기자 간담회에서 김범수는 해당 곡을 첫 번째로 뽑은 것에 대해 “당대 최고의 디바였던 신효령 선배의 노래인데, 아주 예전부터 좋아하는 노래 중의 한 곡이었고 커버를 한 번 해본다면 남녀노소를 통틀어서 꼭 한 번 해보고 싶었던 개인적 취향의 노래라서 고르게 됐다”고 밝

힌 바 있다. 함께 공개된 뮤직비디오에는 모델 한현민이 출연해 독보적인 감성을 드러냈다. 특히 한현민은 ‘난 널 사랑해’를 직접 부르는 모습으로 곡의 분위기를 감성적으로 이끌어냈다.

김범수는 한현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팬인데, 한현민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가 곡의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 캐스팅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범수의 ‘MAKE 20’은 과거의 음악 재탄생(=MAKE), 새롭게 선보이는 음악(new.MAKE) 그리고 클래식에서 온 음악(=we.MAKE)까지 세 가지 키워드로 진행된다. 이날 공개된 첫 번째 싱글 ‘난 널 사랑해’를 시작으로 총 20개의 싱글이 순차적으로 발매 될 예정이다.

## 韓 영화 칸 상영일 확정...‘공작’ 11일 · ‘버닝’ 16일



제71회 칸국제영화제(칸영화제)의 초청을 받은 우리나라 작품 ‘공작’(윤종빈 감독)과 ‘버닝’(이창동 감독)의 상영 일정이 확정됐다. 각각 현지시간으로 5월 11일과 5월 16일에 상영될 예정이다.

‘공작’과 ‘버닝’은 지난 12일 제71회 칸영화제 초청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각각 미드나잇 스크리

닝 상영작, 경쟁부문 진출작으로 확정됐다. 특히 ‘버닝’의 경우 한국영화로서 3년 연속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한 것이라 그 의미가 깊었다.

‘공작’은 1990년대 중반,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북한의 실

체를 파헤치던 인기무 스파이가 남북 고위층 사이의 은밀한 거래를 감지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다.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윤종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윤종빈 감독은 ‘용서받지 못한 자’로 2006년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의 초대를 받은 바 있다.

2010년 ‘시’로 칸영화제 각본상을 받은 이창동 감독의 신작 ‘버닝’은 유희회사 알바생 종수(유아인)가 여덟 째 친구 해매(전종서)를 만나고, 그에게 제체불명의 남자 벤(스티븐 연)을 소개 받으면서 벌어지는 비밀스럽고도 강렬한 이야기를 그린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헛간을 태우다’를 원작으로 했다.

한편 제71회 칸영화제는 오는 5월 8일부터 19일까지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경쟁 부문 심사위원은 할리우드 연기와 배우 케이트 블란쳇이 맡았으며 개막작으로는 이란 감독 아슈가르 파르하디 감독의 영화 ‘에브리바디 노우즈’(Everybody Knows)가 선정됐다.

### 오늘의 순서 2018년 4월 27일 금요일 (음력 3월 12일)

- ▶ 쥐띠** 언제나 자기 주관을 분명히 내세우며 생각하라. 남에게 잘 해주는 것은 좋지만, 실속을 차리며 베풀고 없애려 하는 과감히 없애라. 5, 6, 8월생 그, 오, 바 성씨 자기 것이 아니면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아야 한다.
- ▶ 돼지띠**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것은 좋으나 지금 처한 상황을 안다면 자존심을 버려라. 앞길을 내다보기 힘든 법이다. 진실만 당신을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1, 3, 5월생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일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 푸른색이 길하다.
- ▶ 호랑이띠** 변동하려는 일 시기상조다. 이상은 높으나 금전이 따르지 않으니 하니 하는 것만 못 하겠다. 성공한 행동은 금물이 다. 4, 6, 12월생 애정으로 고민하는 격이다. 상대 또한 갈등을 느끼며 그대를 주시하니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
- ▶ 토끼띠** 생각한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다 보니 가정에 불화가 심화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지금 상황을 가족과 함께 의논하면 해결할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 오 성씨 서로 위한 것만이 난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 용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상대방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할 마음의 여유를 찾을 때다. 현재는 누구 말도 귀에 들여지지 않는다. 눈 뜨고 있으나 앞이 보이지 않는 격이다. 2, 3, 5월생은 그, 오, 바 성씨와 갈등을 빚는다.
- ▶ 닭띠** 행과 불행은 마음에서 온다. 나를 다스릴 때 가정 또한 웃음꽃이 피겠다. 7, 10, 12월생 혼자 하는 일이 힘들다 해서 중단하지 말고 동업으로 재도전하라. 번창한다. 복, 서 쪽 닭, 돼지띠에게 도움을 청하라.
- ▶ 말띠** 심신이 불안하고, 신념 없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는 구나. 바, 오, 흥 성씨 밤마다 산란한 꿈속에서 해매는 격이다. 내 위치를 지키고,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5, 8, 11월생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듬으라. 가족을 생각할 때다.
- ▶ 양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4, 6, 12월생 그, 오, 흥 성씨 혼자 고민하던 것 있다면 동북쪽 사람 덕에 해결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자식 걱정 늦은 시간 외출은 삼가야 한다.
- ▶ 물총새띠** 무슨 일든 속단하지 말고, 계획이 완전히 성립한 뒤 변동하라. 가족을 편안하게 하려면 내 고집대로만 하지 말아야 한다. 애정도 상대를 잡으려면 이해심과 자기의 생이 필요하다.
- ▶ 개띠** 상대를 제압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계획성 있는 처세를 보이라. 1, 4, 6월생 성공함을 자랑하고 서서히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 오, 흥 성씨 상대 비위를 상하지 않도록 하라. 없으면 없는 대로 대처해야지 허세를 부리면 화가 미친다.
- ▶ 뱀띠** 넓은 길을 놓아두고 좁은 길을 걸으며 위험 속에서 산다. 5, 7, 8월생 몸이 지친 대로 지친 상태다. 새물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거 또한 아니니 허망할 뿐이다.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는구나. 흰색, 빨간색이 길하다.
- ▶ 돼지띠** 생각 없이 시작한 일이지만, 중도에 끝낼 수는 없다. 4, 9, 10월생 애정도 진퇴양난이다. 눈치만 살피면서 살아 가겠다. 그, 오, 흥 성씨 아는 것은 많으나 실천하지 않으면 손해만 볼 뿐이다. 미련을 두지 말고 새 장을 열라. 투기는 삼가야 한다.